

축산분야 농업보조사업 사후점검

무주군,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투명성 확보 위해 지원 목적대로 사용여부 확인

무주군이 최근 3년간 지원된 축산분야 농업보조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분야 농업보조사업에 사용된 영농장비와 자재비로 형세 누수를 사전 차단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농업보조사업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

관내 축산농가 이번 사후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297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2020년까지 총 6억3천여만 원(국비 7,600여만 원 포함)이 투입됐다.

농업정책과 6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답사 및 서류 조사를 통해 실적과 운영이 미흡하거나 미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거나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

은 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축산팀 정창남 팀장은 "축산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위해 지원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며 "사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동향면 능금리 마을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진안고원협동조합, '용담제일농길' 공동체 의식 함양·마을 화합 위해 활용

진안고원협동조합(이사장 박천창)은 '용담제일농길'이라는 제목으로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상능길, 하능, 추동, 외금, 내금)를 배경으로 한 마을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했다.

용담제일농길은 2021년 봄부터 4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통해 총 6절, ▲1절:동향면의 역사적 정체성, ▲2절:능금리의 물리·지리적 자연환경, ▲3절:내금마을 스토리텔링, ▲4절:능금리 마을 스토리텔링, ▲5절:추동마을 스토리텔링, ▲6절:외금마을 스토리텔링)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국사등재형(능길, 추동), 연화부수형(외금), 영구하산형(내금)으로 이루어진 동향면 능금리 소속 마을들의 지정학적 내용이 함께 담겨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용담제일농길'의 저자 장원기 박사(원광대학교 웰니스 문화관광학과 겸임교수)는 "용담대에 물이 차면 국사봉 아래에 있는 능금마을에서

국사를 결정하는 큰 인물이 나온다'는 옛말을 근거로 옛 문헌과 장소 지정학적 근거를 통해 책을 편찬했으며, 능금리 마을지가 능금리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창 이사장은 "진안고원협동조합에서 동향면 능금리 마을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 편안하게 됐으며, 고향주민과 동향면 출향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계현 동향면장은 "동향면은 옛부터 교육을 중시한 고장으로 유명했다"며 "문중자제와 지방후학 교육을 위해 지어진 지선당이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배출한다는 국사봉 또한 위치에 있고 실제로 많은 위인들이 동향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면민과 출향민들에게 전달해 동향면 능금리 마을을 알리고,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용담제일농길'이라는 제목으로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를 배경으로 한 마을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했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마을 화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사업 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무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28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752억 1,400만 원으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무주 납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군립요양병원 건립 등 안정적인 무주군 재정운영과 코로나19 대응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및 여러 군 주요사업들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는 30일 각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9월 2일 각 상임위별 일반안건 질의답변과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정책 발맞춤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코로나19 이후 관광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으며 무주군도 이에 맞춰 관광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등방천에 관광 기능을 더할 수 있다며 친수공간을 활용해 야간 경관조성사업을 실시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30일 열린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무주군 관광정책 대책마련 촉구' 5분 발언을 하고 무주군의 쇠퇴하는 관광산업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말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무주군민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으며 특히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타격은 정말 심각하다"며 "무주군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늦어 관광객 수가 줄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의 정책, 대안 수립을 해야 한다며 비대면 관광에 특화된 정책과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은영 부의장은 "올해 여름 무주군 관광을 분석해보니 고급풀빌라, 독채펜션, 야영장 등 다른 관광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장소가 인기를 끌었다"며 "여행산업이 관광트렌드에 따라 바뀌고 있어 무주군의 모든 관광지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풍조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강화와 무인체크인 시스템 등 관광과 IT가 접목되는 관광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무주군천동이 살아야 무주의 경제가 살아난다"며 무주리조트에 곤도라 교체와 워터파크 건립, 쥘리라인과 루지 등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에는 야간 경관조성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어달라. 등방천의 친수공간을 활용해 서울의 청계천 같이 관광과 휴식의 기능을 더하면 등방천 주변상가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무주의 관광산업이 한 때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보던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도록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

장수군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재활용하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021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관내 빈집을 4곳을 선정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해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동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저부담 5%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정비비를 마친 빈집은 이후 의무 임대기간 5년 동안 저소득층 및 귀농·귀촌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올해 3월 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해 4곳을 선정하고 이 중 3곳을 공사 완료했으며, 남은 1곳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9월 1일부터 열람·의견제출

진안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5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진안군이 조사한 산정하고,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도 완료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기간을 갖고 있으며,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자가 열람부를 이용하여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맞춤형 지원책 필요"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주군 관광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주만의 맞춤형 지원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30일 열린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관광객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 여행업 등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군수께서 무주군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했으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무주군 외부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17% 이상 감소하는 등 인근 시군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에 맞서 관광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무주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총예산 대비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0.073%, 2020년에는 0.072%, 2021년은 0.079%인 등 예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무주 관광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영업 유지조차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무주를 떠날 생각이 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 무주군은 이런 현상을 대응할 수 있는 자료라도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주군의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농촌일손 부족문제,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부족 등과 결합하여 무주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관광, 농촌일손 부족문제, 비대면 마케팅 지원,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대책을 재수립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무주군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긴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